출구 없는 일상에 상상의 날개를 달다

광주시립미술관 사진소장품전 '풍경-시'…내년 2월3일까지

'어긋나다' '마음을 놓다' '시가 되다' 3개 섹션 38점 선봬
앵글에 담아낸 풍경, 시적 상상력 더해 무한한 자유 선사

앵글에 비친 일상 속 풍경들을 감상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출구 없는 답답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된다. 사물의 실체를 정확히 보여주는 매체로 여겨지는 사진이 반전의 매력을 발휘하면서 시적 상상력을 증대시키고, 과학의 산물인 사진을 통해 뜻밖의 마음의 안식과 쉼을 얻는 경이로움도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다.

김영태 作 '잃어버린 풍경-숨결3'

김자이 作 '휴식의 기술'

라규채 作 'Bamboo#027'

앵글에 비친 일상 속 풍경들을 감상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출구 없는 답답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사진소장품전 '풍경-시'를 사진전시관에서 14일부터 2022년 2월13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시적 정서와 여유를 경험케 하기 위한 풍경사진전으로 작품의 주제와 연결되는 시를 함께 전시한다.

전시공간은 '어긋나다' '마음을 놓다' '시가 되다'의 3개의 섹션으로 나뉘면서 서로 다른 결의 풍경 38점을 펼쳐 보인다.

첫 번째 전시공간인 '어긋나다'에서는 사회의 부조리한 현상들을 모순된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이재용의 작품 '시선의 기억-강쟁리 정미소'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뒷전으로 사라지는 상징물로써 정미소를 찍었지만 오히려 화면은 이국적 정취까지 담는 회화처럼 다가온다거나 극심한 수질오염으로 둥둥 떠있는 부유물을 화면 가득 확대한 문선희의 작품 '879-06'은 마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 듯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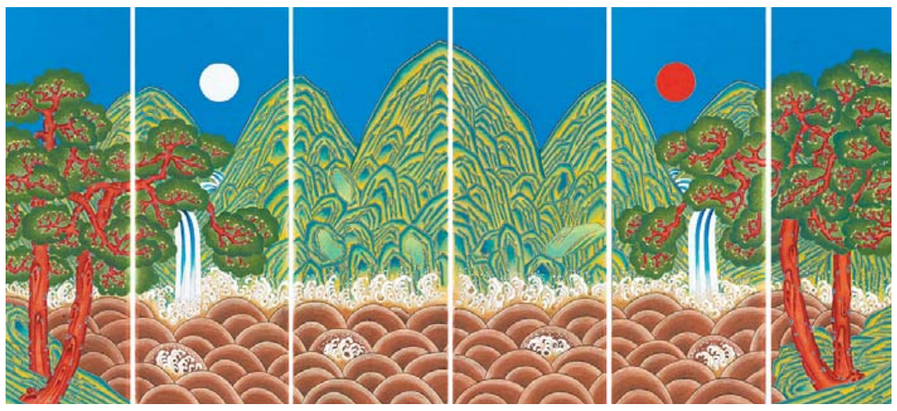
그런가 하면 김영태의 '잃어버린 풍경-숨결'은 오염된 하천에 투영된 도시 풍경을 클로즈업하는데, 정작 인화된 사진은 밤을 밝히는 네온사인으로 인해 컬러풀한 유성의 물감들을 풀어놓은 듯 독특하게 매혹적이다. 이처럼 카메라의 조작은 현재의 풍경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역전시키며, 의도된 간극은 더 큰 심리적 파장을 일으킨다.

두 번째 공간 '마음을 놓다'는 관람객의 마음을 저절로 놓게 만든다.

강봉규, 강운, 김숭택, 김자이, 박상호, 이세현, 조현택은 대상과 교감을 통해 내적 충일함을 한층 끌어 올리면서 물아일체의 경지를 시각화한다. 지우고, 지우고, 지우면서 공(空)에 이르거나 고요 속에서 누군가의 흔적을 더듬게 하고, 직접적으로 실제 풍경을 진솔하게 담아냄으로써 현실적 미감을 전달하기도 한다. 자연과 교감을 통한 정서적 충만감은 최고조에 달하면서 보는 이는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린다.

마지막 공간인 '시가 되다'에서는 박일구, 박홍순, 이주한, 라규채, 유태준, 빌 베클리의 느린 작업이 무한한 공간감과 경계를 지우는 화면을 창출한다. 생활 현장이고 일터인 그곳이 자유로운 공기가 가득한 우주가 되고, 색채를 지워감에 따라 모노톤으로 바뀌는가 하면 가녀린 꽃줄기의 떨림을 고스란히 전해줌으로써 현상을 넘어선 추상의 세계로 진입시킨다. 특히 회화적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라규채와 유태준, 의 작품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풍경-시'가 완성되는 마지막 공간이다. /박희중 기자

박상호 作 'B.D-namyangju.1'


김수현 作 '일월오봉도'

반복과 집중의 미학 민화, 작품으로 피다

민화작가 송향 김수현, 15일까지 금호갤러리서 첫 개인전

민화작가 송향 김수현〈사진〉이 5년여간 집중적으로 그려온 민화 작품을 모아 첫 개인전을 갖고 있다. 15일까지 광주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전시작은 일월오봉도를 비롯해 크고 작은 병풍이 7점이나 된다. 연화도, 어해도, 백학도, 화훼도가 병풍그림으로 좌악 펼쳐져 있다. 그 외에도 두쪽 가리개가 3점, 액자작품이 15점이나 된다. 액자작품은 화훼도, 화접도, 문자도, 책가도, 책거리도 등 다양하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일월오봉도'가 시원한 색감으로 자태를 뽐낸다.

김 작가는 개인적으로 코발트를 매우 좋아한다. 그래서 분채를 아교로 개어 만든 물감을 올리고 또 올리길 10여 차례나 반복했다. 그 결과 푸른 기운이 아주 강한 하늘이 펼쳐졌다. 거기에 손이라도 대면 당장에라도 푸른 색 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다. 오봉병·일월오봉병·일월오악도·일월곤륜도라 불리우는, 대표적인 민화다. 그가 그린 일월오봉도는 품격놓은 자태로 주변을 호령하고 있었다.

김 작가는 어엿한 민화작가다. 살기에 바빠 예술과의 호흡을 미처 하지 못했던 그가 10여년 전 정산 백현호 선생의 전시회를 보고 그림에 빠져들었다. 그의 '산' 그림을 보고서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선생을 찾아갔고 붓을 잡을 수 있었다. 먹을 묻혀 산수화를 그리고 호분을 개어 채색화를 그리던 중 우연히 민화를 접하게 됐다.

그렇게 시작한 민화는 5년째 접어들었다. 색에서 허우적대다가 그동안 했던 작업들을 모아 개인전을 열어 친근한 민화의 세계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

반복과 집중의 미학, 김 작가를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그리기엔 별다른 재주가 없었다고 토로하는 그는 오로지 모사를 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결이 고운 민화의 세계를 열어젖혔다. 반복과 집중으로 색감을 적절히 뽐어내며 격조높은 민화를 연출해냈다.

김 작가는 이번엔 민화로 전시회를 열지만 이후엔 창작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민화를 통해 색을 연찬하고 색을 맘껏 희롱했지만 안에서 꿈틀대는 창작의 열정을 누를 수 없다. 해서, 민화로 풀린 손과 창작의 의지를 불태워 창작민화와 한국화로 다시 넘어가 볼 참이다.

김 작가는 "그동안 민화에서 다진 색감각력으로 창작민화와 한국화를 그려보고 싶다"며 붓을 들고 또 다른 그림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

/박희중 기자

"광주의 달 찍고, 소원을 빌어봐"

광주관광재단, 추석맞이 SNS이벤트 26일까지 진행

광주관광재단은 추석명절 기간 동안 소규모 인원으로 안전하고 즐겁게 광주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위해 '광주의 달을 찍어봐'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 상황에도 광주를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어려운 시기 서로의 행복과 행운을 빌어주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참여방법으로는 광주관광재단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를 팔로우 한 뒤, 개인 계정에 광주 관광지에서 촬영한 달 사진을 필수 해시태그, 소원 글과 함께 업로드하면 된다.

조건을 충족한 응모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치킨과 커피 기프티콘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좋아요 수 상위권 중 내부 회의를 통해 포토제닉 상을 선정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입장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광주관광재단에서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과 맞춰 비엔날레 기간 중 팝업스토어, 여행 토퍼 자판기 설치 등 예술여행 대표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이다.

'광주의 달을 찍어봐' 이벤트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광주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희중 기자

국립광주박물관,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잔치'

10월 12일까지 작품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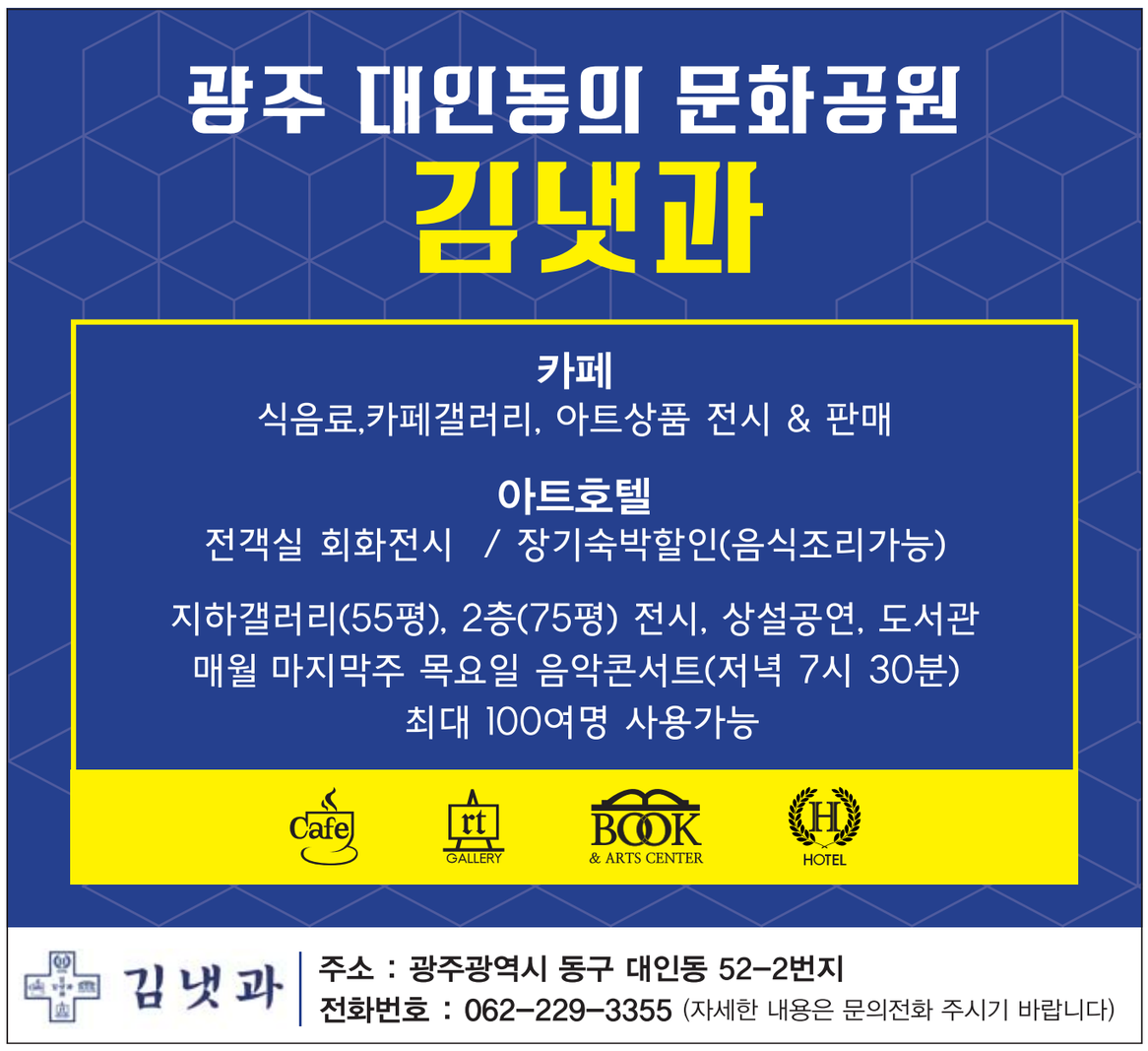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이 오는 10월12일까지 '제33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잔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자신만의 시각으로 문화재를 감상하고, 재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유산에 흥미를 갖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이다.

1988년에 시작해 제33회를 맞이한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잔치'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운영된다.

참가대상은 광주 전남지역 초등학생 500명으로 한정한다. 참가방법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가신청 후, 등기우편 또는 현장접수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10월28일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홈페이지)에 발표한다. /박희중 기자



CMYK